

중 중산대에 김성숙 기념관

기념사업회 · 중산대 '합의' ... 중 정부허가 완료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와 중국 중산(中山)대학교는 1월 31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기념사업회 사무처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 광둥성(廣東省) 중산대학 교정에 김성숙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6년 11월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중산대학 교정 안에 있는 대학 본부 옆에 김성숙 기념관 건립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협의회에서는 기념관 건립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병생 중산대 부총장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 정부에 설립허가를 이미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중산대학교는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항일독립운동가인 운암 김성숙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며 '유학한국력명정년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혁명운동>을 간행한 유서 깊은 곳이다. 총 30여명의 공사비용이 소요될 김성숙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6600㎡, 건물면적 50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관 안에는 운암의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단체 자료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항일연대 자료 등이 전시된다.

한편 3월경 양측 실무단은 중국 중산대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갖고 기념관 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한다.

김주일 기자

별내·장현지구에 '포교거점'

봉선사 본·말사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종교부지' 활용 추진

봉선사, 불암사 등 조계종 제25교구 본·말사 일부 사찰이 개발택지내 종교부지 대토를 통한 포교거점 확보에 나섰다.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424호)에 봉선사 불암사 등의 토지 총 1600여평 정도가 편입됨에 따라 2개 사찰은 현금보상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택지내 종교부지 불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단은 이 두 사찰이 종교 부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는 개발지구 내에 종교시설도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혀 어려움이 예상된다.

봉선사 교구 사찰들은 종교 부지

를 불하받게 되면 대규모 포교당과 문화센터를 건립해 지역주민 포교 활성화 거점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상협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교시설도 없기 때문에 종교부지 불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와관련 봉선사 주지 철안, 불암사 주지 일관 스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는 1월 31일 교구총회에서 구성해 종교 부지를 불하 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는 14개의 종교부지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불교의 구성 비율은 0.5%로 미약한 실정이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남양주

지역에는 제25교구 봉선사 소유 토지가 포함된 별내지구 외에도 장현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이곳에도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종교부지 불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별내 지구 인근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어 일산과 시흥, 인천 등에 있는 불자들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어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말사 100여 스님들이 종교부지 확보를 위해 시와 개발공사 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새 연재로 더 알칩니다

■ 승준영 시인과 禪詩가 읽기 · 16면(역주)

옛 선사들이 남긴 깨침의 율림. 한 구절의 선사에는 우주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편의 시집을 읽는 동안만큼은 누구나 행복합니다. '시집 읽어주기' 바람을 들고 온 공공기 시인이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엮어진 시집을 소개하며 시 읽는 맛을 찾아 드립니다.

■ 공공기 시인과 시집 즐겨읽기 · 16면(역주)

여러분은 몇 편의 시를 암송 하시나요? 시는 삶의 여유와 아름다운 감성을 찾아 드립니다. 한 권의 시집을 읽는 동안만큼은 누구나 행복합니다. '시집 읽어주기' 바람을 들고 온 공공기 시인이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엮어진 시집을 소개하며 시 읽는 맛을 찾아 드립니다.

■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 다음주부터 5면

큰 산에 큰 절이 있고 큰 절 아래에는 불교문화가 있습니다. 사하촌은 단순한 관광단지라 아니라 우리시대의 불교가 살아 숨쉬는 문화클러스터입니다. 큰 절을 배경으로 형성된 사하촌의 불교문화 현수소를 수필가 김성미씨와 시인 이대홍씨가 번갈아 탐방합니다.

■ 생활 속 신행이야기-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11면

우리의 삶은 늘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됩니다. 당당한 불자로서의 삶을 이룰 여가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서투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통곡대 선학과 강사 황수경 박사가 생활 속에서 마음 다스리는 길을 안내합니다.

■ 한국 근 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 10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던지는 질문. 생각의 틈새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터져 나오는 대답. 선문답은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자애로운 가르침이자 생김을 허락하지 않는 비박같은 질책이기도 합니다. 수필가이자 김성우씨가 근 현대 한국 고승들의 선문답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생생한 깨침의 육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정산 스님의 '사찰 음식의 모든 것' · 16면(역주)

최근 건강식으로 크게 각광받는 '사찰음식'은 그 재료 하나하나와 만들고 먹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산사에서조차 전통 사찰음식이 사라지고 있어 그 보존과 계승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산 스님(법명 김연식)이 사찰음식 본연의 정신과 유래, 특징, 만드는 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정산 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범어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통사찰에서 전승된 비법을 전수받은 '사찰음식 연구 보급의 원조'입니다.

■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 15면

한국불교음악사를 인물, 합창단, 통사 등으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도 있는 불교음악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안병갑씨가 한국불교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들려 줄 것입니다.

캄에 '생명의 우물' 1천개 판다

'2007 생명의 우물 1000 오픈식'이 1월 26일 캄보디아 캄푸주에 위치한 생명의 우물 1000 프로젝트 총괄 본부 '생명의 우물 캄보디아 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 스님, 타이쿰 캄푸주 주지사,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오픈식에서 월주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물과 고 통 받는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게 남은 모든 힘을 쓰겠다"며 "1000개의 우물이 완공돼 캄푸주 주민 전체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지구촌공생회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쿰 주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구촌공생회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줘 희망이 솟아오른다"고 말했다.

'생명의 우물 캄보디아 센터'에서는 수질 검사 및 관리, 우물 이용 현황 조사와 평가, 주민 보건 위생 교육 등이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가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병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출범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선재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일밥 등의 사찰음식을 맛보는 모습. 관련 인턴뷰 6면

사진=박재원 기자

민주항쟁 20년 불교추진위 결성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잇기 위한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불교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명진·여익구, 이하 불교추진위원회)가 1월 31일 발족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씨의 49제날인 3월 30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천도재와 추모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근 현대 불교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모아 자료집도 발간한다.

불교추진위원회는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개최한 출범식에서 "20년 전의 항쟁과 개혁 정신을 옮기게

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 세상을 향한 진군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번 출범한 불교추진위원회에는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불교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월운(봉선사 주시) 지선(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고문) 경우(대각사 회주) 대성(범어사 주지)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청화(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을 비롯해 시인 고은·신경림, 고준환·한상범 교수 등이 고문을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명진·학담·현웅·효림 스님과 고광진·배영진·서동석·여익구·최연씨가 선임됐다.

여수령 기자

사찰음식 맛보세요!

'회암사부도' → '회암사무학대사홍용탑'

문화재청 명칭 변경

그간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아 '회암사지 부도'라고만 불렸던 보물 제 388호가 '회암사무학대사홍용탑' 사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회암사지 부도는 무학 대사의 부도가 확실하며,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짐에 따라 유물명의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 '쌍사자석등'으로 변경한다고 1월 29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과 회암사무학대사홍용탑 앞의 무학대사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회암사지 부도는 무학 대사의 부도가 확실하며,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짐에 따라 유물명의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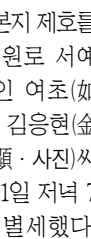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따르면 1397년 태조는 무학 대사의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만들도록 명했고, 1405년 무학 대사가 금강산 금강암에서 입적하자 태종은 영골을 회암사에 마련된 부도에 안치했다고 한다.

회암사무학대사홍용탑 앞에 있는 무학대사비에는 '무학의 비는 태종 10년(1410)에 임금께서 문신 변계량에게 명하여 글을 짓게 하고 공부(孔俯)가 써서 두 왕사의 탑 아래에 세웠는데...'라고 기록돼 있다.

여수령 기자

원로 서예가 여초 김응현 선생 별세



본지 제토를 쓴 원로 서예가인 여초(如初) 김응현(金應顯·사진)씨가 1월 저녁 7시 별세했다. 향년 80세.

여초 선생은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은 소전 손재형(1903-1981), 겸여



유희강(1911-1976) 이후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로 불려왔다. 고인은 1956년 동방연서회 설립회원으로 참여했고 69년부터 이자장을 맡아 수천명의 제자들을 길러왔다.

그러나 당뇨와 파킨슨 병 등의 합병증으로 10여 년 전부터 투병해왔고 96년부터 인제 백담사 인근에 '구룡동천(九龍洞天)'이라는 통나무 집을 짓고 지내왔다. 김원우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컴퓨터(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먼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1일[목]	목포시	-	무안읍 25km
2월 2일[금]	무 안	-	신광 23km
2월 3일[토]	신 광	-	영광읍 17km
2월 4일[일]	영 광	-	고창읍 25km
2월 5일[월]	고 창	-	줄포 22km
2월 6일[화]	줄 포	-	부안읍 19km
2월 7일[수]	부 안	-	김제 차해사 20km

제11주 2월 8일 - 2월 14일 [16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8일[목]	김 제	-	대 야 23km
2월 9일[금]	대 야	-	서 천 23km
2월10일[토]	서 천	-	용 천 27km
2월 11일[일]	서용천	-	보령대천 18km
2월12일[월]	대 천	-	광 천 22km
2월13일[화]	광 천	-	갈 산 23km
2월14일[수]	갈 산	-	서산시 26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